

3 경인일보

김포·파주 민통선내 첫 '산림 습원' 7곳 발견

멸종위기식물 '양뿔사초'등 서식

최재훈 기자 발행일 2022-01-25 제9면



파주시 용산리에서 발견된 산림 습원. 2022.1.24 /국립수목원 제공

비무장지대(DMZ) 서부 민통선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'산림 습원'이 잇달아 발견됐다.

24일 산림청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최근 김포와 파주 민통선 내에서 희귀식물과 습지식물이 서식하는 산 림 습원 7곳이 정밀조사를 통해 확인됐다. 정밀조사는 3년 주기로 이뤄지는데 일반인 접근이 제한된 민통 선에서 산림 습원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.

산림 습원은 습지와 함께 화전이나 경작 등으로 수분을 다량 함유하게 된 지형으로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 보전되고 있다.

이번에 발견된 산림 습원은 과거 경작지이던 묵논 유래 2곳, 자연 습지 3곳, 사방댐 건설에 따른 인공형 습 지 2곳 등 6.5ha(6만4천923m²)에 이른다. 이들 지역을 조사한 결과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양뿔사초(멸종 위기종), 층층둥굴레(위기종), 왕씀배(취약종) 등 9개 분류군과 습지서만 사는 물질경이 등 절대 습지식물이 확인됐다.

포천/최재훈기자 cjh@kyeongin.com